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소식지

# FoMo

Forced Mobilization

2023년 1월호

Vol.29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 FoMo

Forced Mobilization

## 재단 소식

03 사이판으로 추도순례 떠나다

## 역사관 소식

- 06 평화기원 어린이 음악회 개최  
년 역사관에서 뛰어놀 때가 제일 예뻐
- 08 2022년을 보내며  
역사관 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다

## 소장유물

10 2022년 공개 구입 유물

## 역사관 방문기

12 아버지의 딸

## 도서 소개

14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수증 유물 도록 발간

## 탐방기

16 일제시기 조선인을 위한 휴양지는  
있었다? 없었다?

## 유관기관 소개

18 뜻을 지켜온 경북인의 이야기가 있는 곳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 에디터주

20 편집위원들의 소식지 제작 소감기

## 애독자란

22 네모네모 로직

## 역사관 사용설명서

23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바라고 바라보다 「동백」 편 엄동설한에도 그 빛깔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붉은 동백의 꽃말은 청렴과 절조이고 바래지 않고 맑게 빛나는 흰색 동백은 굳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이라는 목표 아래 잊혀져 가는 역사의 조각들을 모아 맞추고,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비추는 역사관의 역할과 다짐을 나타냅니다.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2년 12월 15일 통권 제29호 | **발행인** 심규선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강창석, 김성곤,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반선영, 장민성, 추경아 | **디자인** 성준문화 |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 사이판으로 추도순례 떠나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유족들을 모시고 사이판으로 추도순례를 떠났다.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 참가자들은 사이판 지역의 제2차 세계대전 격전지와 강제동원 유적지를 방문해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재단에서는 매년 강제동원 피해·희생자 유족들을 초청해 국내의 추도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2-721-1810)



\*본 추도순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이판 일제강제동원 유적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이판의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헌배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판의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추도식을 거행하고 있다.



## 티니안 군사시설 및 강제동원지

일본군 통신사령부

Radio Communication Building



노스필드 활주로

North Field



일본 해군항공사령부

Japanese Air Administration Building



티니안섬 한국인 위령비

Korean Memorial



티니안 자살절벽

Suicide Cliff



일본 사탕수수 공장 옛터

Old Japanese Sugar Company HQ



## 사이판 군사시설 및 강제동원지

슈가킹 공원

Sugar king Park



NMI 박물관

NMI Museum of History and Culture



태평양 한국인 위령탑

Korean Peace Memorial



일본군 최후 사령부

Last Japanese Command Post



사이판 만세절벽

Banzai Cliff



## 사이판 태평양 전쟁 유적지 및 추모시설

마운트카멜데성당

Mount Carmel Cathedral



아메리칸 기념공원

American Memorial Park





## 평화 기원 어린이 음악회 개최



# 년 **역사관**에서 뛰어놀 때가 **제일 예뻐**

역사관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11월 15일부터 3일간 ‘평화 기원 어린이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3일간 어린이 약 200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시간’이라는 구호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초청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글·사진 | 역사관 장민성



어린이들이 평화 기원 마술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평화 기원 공연에 박수를치고 있다.







어린이가 인형탈 배우와 교감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공연 음악에 맞춰 단체 운동하고 있다.





## 2022년을 보내며 역사관 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다

2022년을 마무리하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람객을 위해 땀을 흘리는  
역사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역사관의 얼굴인 안내데스크에서 오늘도 관람객들을 친절히 맞이하는  
박수현, 고수빈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하루는 왠지 적절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방문해주시는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역사관에는 직원들만 있지 않습니다. 역사관 곳곳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자원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역사에 흥미가 많아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저 이곳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는 각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방문하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우리를 찾아주세요! 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박수현 선생님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교육의 장이기도 하지만 아픈 역사를 기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둡기만 할 공간에 새싹 같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재잘대면 역사관이 밝아지면서도, 그 밝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픔이 있기에 현재가 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현재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려주세요!



- 고수빈 선생님 -



역사관 관람객 만족도 1위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청결'이었습니다.  
늘 깨끗한 역사관을 위해 땀 흘려 일해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관을 찾아와주신 관람객분께 먼저 감사 인사부터 올립니다. '청결이 역사관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으로,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관을 가꾸고 청결을 유지한다면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큰 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미화 담당 선생님들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나 청결한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과의 첫 만남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만남이 언제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미숙 선생님 -



어린이체험관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공공근로 선생님께도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중순부터 4단계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역사관 7층 어린이체험관에서 근무한 김순남입니다. 어린이체험관은 단순한 놀이방이 아니라 체험관 전반을 강제동원의 테마로 꾸민 곳입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로 풀어서 만들었지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있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이 전에 아이들과 전시실을 둘러본 후 체험관에서 뛰어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이들이 놀기 좋은 시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근무로 단순한 저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수사를 지나 당곡공원을 지나는 출퇴근 길에서 점점 예쁘게 물들어가는 나무와 경치를 보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자주 체험관을 찾아주시는 단골손님분들과 안부를 묻고 웃고 이야기하는 일상도 너무 소중한 기억입니다. 오랜 경력단절로 일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던 저에게 역사관은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주고, 일하는 즐거움도 알게 해준 감사한 공간입니다. 이제 근무를 마치면 다시 관람객으로 돌아가 자주 역사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역사관의 모든 직원분과 관람객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순남 선생님 -



## 2022년 공개 구입 유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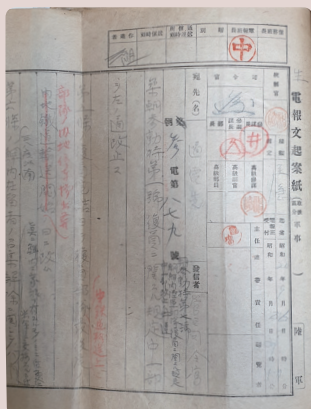
역사관은 '구마모토(熊本) 육군특별대연습 사진엽서' 등 25건 324점의 유물을 공개 구입했다. 올해 구입 분야는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특별전을 위한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탈·훼손 관련 자료, 일본 사도광산 관련 자료 등이다.

### 국내외 강제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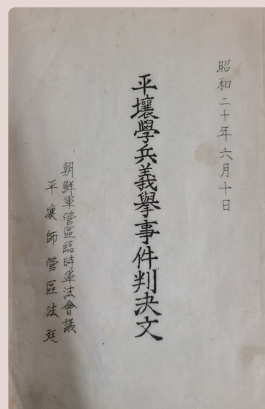
**動員復員에 관한 參考綴**  
(동원복원에 관한 참고철)

1941년 태평양전쟁을 전후한 시기, 1945년 1월 17방면군 편성, 1945년 2월 조선군의 조선군관구 개편 상황에 대한 일본군 군사기밀 문서 원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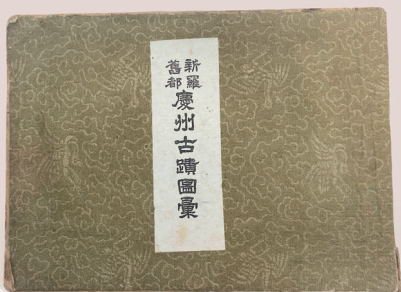
**朝鮮關係復員資料**  
(조선관계복원자료)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일본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일본으로 귀환시키는 과정에서 만든 문서



**평양학병의거사건 판결문**

1944년 일제가 평양으로 강제로 징집한 학병들이 집단으로 탈출을 시도한 사건 관련 판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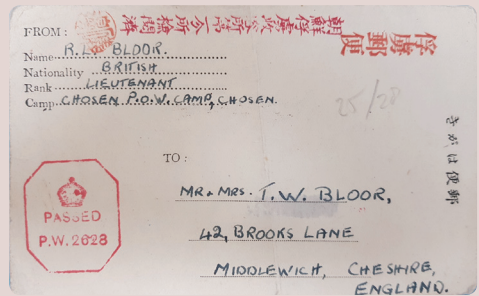
###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탈·훼손

#### 신라구도 경주고적도회

경주고적 관련 사진 자료 30여점 수록  
1938년(昭和 戊寅 春)판 조선총독부 발행



## 태평양 전쟁



### 시민 방독면

2차 대전 중 사용한  
일반시민용 방독마스크

### 포로우편엽서 실제

태평양 전쟁 시 조선부로수용소(朝鮮俘虜收容所)에  
수용된 영국군 포로가 보낸 우편엽서

## 2022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물 공개구입 분야

시기	근현대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자료</li> <li>• 해방 후 조선인 귀환,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li> <li>•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명부, 사진, 필름, 의류, 생활용품, 깃발, 증명서, 상장, 수첩, 앨범, 홍보물, 화보, 편지, 수기(일기), 충서, 재판기록 등</li> <li>※ 일본 니가타(新潟) 사도(佐渡)광산 관련 자료 우선 구입</li> </ul> </li> <li>•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탈·훼손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사업 보고서, 자료집, 사진, 그림엽서, 문서, 신문, 잡지 등</li> </ul> </li> </ul>
기타	그 밖에 역사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글 | 역사관 반선영



## 아버지의 딸



역사관 '기억의 터'를 방문하신 손금선님의 모습과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내 나이 올해 83세. 어제 한 일은 기억에도 없다.  
80 세월을 보냈지만 내 3살 때의 기억은 지금 한 일처럼 생생하다.  
엄마 나이 24살 때 3살 먹은 나를 데리고 경주 안강에서 부산으로 살림을 내어  
일본 강제 징용 군인으로 끌려가신 아버지를 뵈러 부산항으로 가셨다.  
저 멀리 배가 들어 온다. “혹시 가고시마에서 오셨나요?”  
엄마는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들의 답은 “다음 배에” “다음 배로 와요.”라는 가녀린 희망의 말만 던질 뿐이었다.  
어린 딸을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을 먼 바다를 바라보셨다.  
언제나 깨어지지 않는 돌덩이.  
아버지에 대해 내가 해드릴 것을 찾아봤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내가 태어난 것은 아실까?



나를 안아보고 만져 보셨을까.  
 70줄이 다 되어가니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었다.  
 흔적도 기억에도 없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천도제도 올리고 애절한 기도도 올렸다.  
 그러다 들려오는 소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아버지 이름 석자가 올라간단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엉엉엉 울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선발로 뛰어가듯 갔다.  
 아직 위패는 없지만 컴퓨터에 아버지 이름을 치니 있으시다.  
 따뜻한 온기.  
 아버지 돌아가신 28세의 꽃다운 나이.  
 그 나이 몇 배를 더 살고있는 나.  
 차가운 화면창에서 아버지 존함이 어찌 그리 따뜻한지.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내 딸 금선아”하고 애비없이 살아온 나를 안아 주시는 듯  
 내 비통한 삶의 무게가 녹아 내리는 듯 했다.  
 울음이 멈추지 않는다.  
 작년 추석 전 드디어 아버지 위패가 올려졌다고 연락이 왔다. 꺼이꺼이 또 울었다.  
 울고 울어도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제 삶의 끝자락에 내 몸도 고단해졌다.  
 생의 마지막 소풍같은 아버지의 만남.  
 이제 내 나이 83세가 되었다.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나를 알아보실까.  
 “아버지, 이제 저 삶의 끝이 보입니다.  
 모든 걸 내려 놓으려니 못다 한 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금선이 이제 갑니다.  
 아버지 곁으로 저 많은 사진 속에 아버지 사진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일가친척 인연 끊어져 아버지 얼굴 전혀 모르나 내 가는 날 아버지 마중나오소서.  
 그리고 꼭 손 잡아주소서.”

그 딸 금선은 2022년 3월 13일 돌아가셨다. 그제서야 아버지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글·사진 | 사월당(@sawoldang)  
 (금선씨의 딸)

역사관 방문기 참여 안내

역사관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증 유물 도록 발간 소식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2022년 12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증유물도록 2016-2020’을 발간했다. 도록은 역사관을 개관한 이후 기증받은 유물들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유물을 기증해주신 분들을 예우하며 유물 기증사업의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기 위해 제작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기증받은 유물들을 한데 모아 연도별로 나누어 차례대로 소개하였다. 기증자들은 ‘유족’, ‘일반인’, ‘전문가’ 그리고 양심의 목소리를 내어준 ‘일본인’들이어서 유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또는 가족사진, 사망증명서, 보험료영수장 등 강제동원과 관련된 유물들을 각각의 스토리, 그리고 상세한 사진과 함께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2023년 1월 중에 배포하여 역사관 4층 로비에서 도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도록 발간을 통해 의미가 깊은 유물 기증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도록에 실려있는 기증 유물들을 한 점씩 차근차근 살펴보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당시에 어떠한 삶을 겪어왔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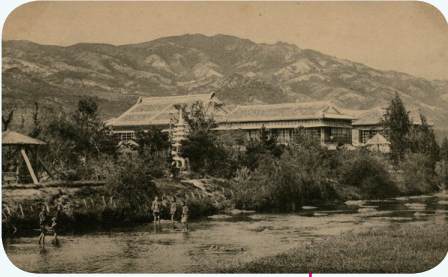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수증 유물 도록은 이북(E-book)으로도 발간해 역사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 역사관 정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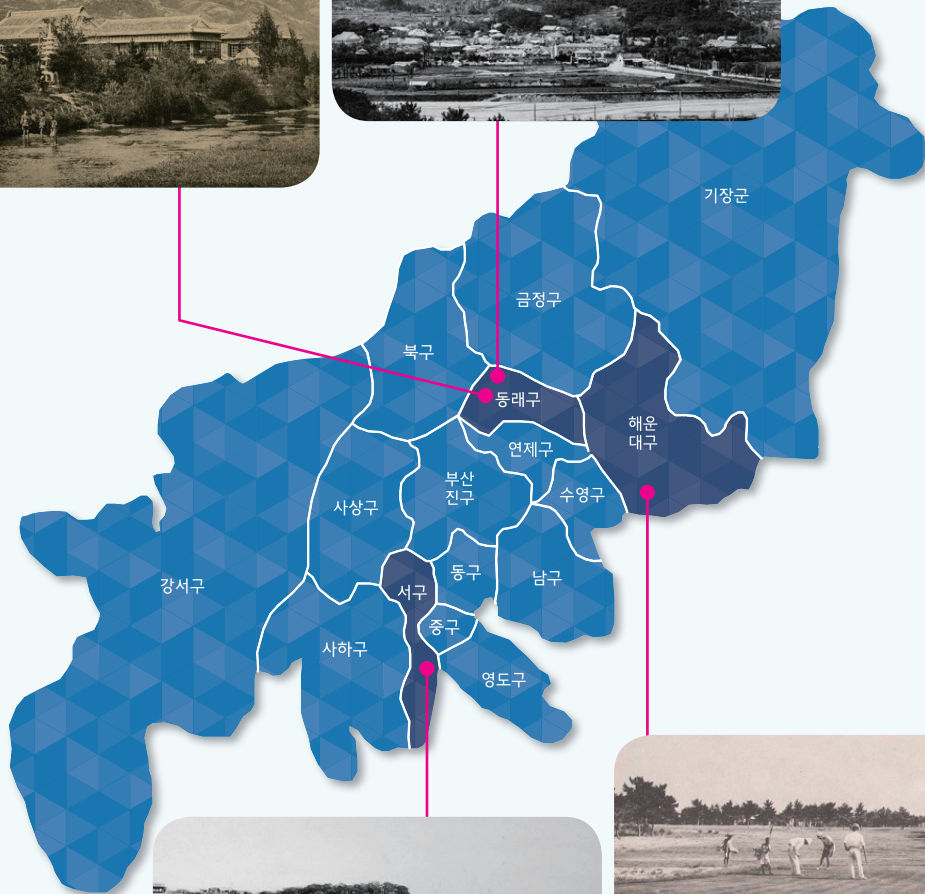


## 일제시기 조선인을 위한 휴양지는 있었다? 없었다?

**동래온천** (출처: 부산일보)



**금강공원** (출처: 국제신문)



**송도해수욕장** (출처: 부산일보)



**해운대골프장** (출처: golfdigest)





안녕! 친구들!  
친구들은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떤 계획이 있어?  
나는 스키장을 너무 가고 싶어!  
그러다 문득 일제강점기에는 어떤 휴양지가 있었을지 궁금해졌어!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제!  
일제강점기의 휴양지를 살펴보고 해!  
그럼 나와 함께 출발해볼까? 출~발!

## 동래별장

(출처: 동래구청)

동래하면 무엇이 생각나? 그래, 바로 온천이지!  
동래온천은 일찍이 신라 신문왕대부터 이용했  
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동래온천은 조선시대 왜관과도 인접해 있어 왜  
인들에게도 그 명성이 자자했지.

그러다 1876년 개항 이후 부산으로 이주한 일  
본인들에 의해 동래온천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  
어. 일본인들이 동래온천 주변에 숙박시설을 지  
었는데, 그중 봉래관(현 동래농심호텔) 건립 후  
조선풍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일본풍의 분위  
기로 바뀌었거든.

그리고 이때부터 다른 위락시설들과 별장들도  
들어가기 시작했어. 일본인 하자마 후사타로(迫  
間房太郎)가 지은 동래별장이 대표적이지!

동래온천은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즐겨 찾는 휴양지였지만 조선인들  
은 주로 공중목욕을, 일본인들은 주로 고급여관시설을 이용했어. 시설  
과 수질면에서 차이가 있었단다.



동래 온천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이곳은 금강  
공원이야! 금강공원은 담배장사로 큰 돈을 본 일본인 상인  
히가시바라 카지로(東原嘉次郎)가 개인정원으로 꾸민 것  
이 금강공원의 출발이야. 히가시바라는 계곡물을 이용해 일  
본식 연못을 만들고 탐을 세웠어. 1931년부터는 일반인에게 개  
방해 온천장에서 온천욕을 즐기던 관광객들이 거닐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관광코스로 이용했지. 금강공원에는 일제 희생자를 위한 위령  
비도 있으니 한 번쯤 가보는 것을 추천해!

## 금강공원







## 해운대 골프장

센텀시티일대

(출처: 부산관광포털)

해운대 골프장은 일본인 정재계, 언론인 인사들이 운동·사교의 장소로서 골프장을 언급하면서 건립을 시작했다. 1933년 문을 연 해운대 골프장의 이용시설은 50전이었다. 당시 조선인 보통 인부의 일급이 0.7원이었으니 일반 조선인 노동

자들이 즐기기는 매우 어려웠을거야. 당시 일본인이 발행하던 『부산일보』에서는 부산 시민의 건강과 외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홍보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찼던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꿈도 못 꿀 휴양지였지. 해운대 골프장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겪으며 병참기지로서 비행장 활주로로 이용했다고 해. 지금은 이렇게 부산의 최고 중심지가 되었다.

송도해수욕장은 송도에 관심 있던 일본인들이 현재의 송림공원에 바닷가와 가까운 정자 하나를 만들어 송도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개발을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는 일본인 유자들이 송도 일대를 휴양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고 이후 이곳엔 해수탕, 여관, 연예관, 운동장 등 각종 시설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조성한 송도해수욕장은 일제강점기 '동양의 나폴리'로 불렸다. 일본인 언론사인 부산일보는 여름철 성수기에 '송도의 부일데이(釜日デー)'를 열어 보트경주, 수영경기, 볼꽃놀이 등의 화려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에 있던 일본인들의 향우회 모임, 관공서, 사회단체, 친목단체들의 모임과 야유회를 개최하는 장소로도 활용했지.



## 송도해수욕장

(출처: 서구청)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부산의 다양한 휴양지를 살펴봤어!  
그런데 대부분 일본인을 위한 휴양지였던 것 같지?  
물론 조선인들도 위에서 소개한 휴양지들을 이용했겠지만  
분명한 건 그 시작이 모두 일본인을 위한 시설이었다는거야.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만큼은 우리를 위한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보자!  
그럼 친구들 즐거운 겨울방학이 되길 바래!



< 참고 자료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KOSIS, VISITBUSAN, 부산 동래구청, 부산 서구청  
김승, 「일제강점기 해항도시 부산의 온천개발과 지역사회의 동향」 『역사문화학회』 14(1), 2011.  
김승, 「동양의 나폴리, 송도해수욕장의 형성과 변천과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8, 2013.  
손환, 「일제강점기 부산 해운대골프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5(3), 2020.



## 뜻을 지켜온 경북인의 이야기가 있는 곳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17년 문을 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내앞마을)에 있다. 기념관이 위치한 내앞마을은 1907년 협동학교를 설립하고,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점되자 집단 만주망명을 통해 항일투쟁을 전개한 김대락, 김동삼을 배출한 마을이다. 기념관은 경북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찾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에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히 경북에서 독립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독립운동기념관을 세운 이유는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경북이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경북은 독립운동의 발상지로, 1894년 갑오 의병이 경북 안동에서 처음 일어나 가장 먼저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하였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독립유공자 수는 17,664명(여성 607명)인데, 그 가운데 경북(대구 포함)은 2,446명(여성 33명)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념관에서는 전시, 교육, 체험 등을 통해 경북의 독립운동사를 알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립관과 의열관으로 이뤄진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광복 제77주년을 맞이하여 경북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주목하여 특별기획전 <식민지 조선 학생이여, 열거하라!>를 전시 중에 있다.

광복 제77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전시를 열고 있다  
사진은 특별기획전시실 입구 모습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을 알리고 있는데, 기념관의 체험공간에서 신흥무관학교 청산리전투를 서바이벌 장비를 통해 경험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어린이 대상 교육인 우리는 새싹독립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체험캠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흥무관학교 서바이벌 체험 모습



새싹독립군 참가 모습



이육사, 이상룡 선생 일대기 동화책

최근에는 안동시와 함께 이육사, 이상룡 선생의 일대기를 동화책으로 엮어 경북의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동화책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경북도서관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기념관은 경북 독립운동사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용 안내

- 관람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입장마감: 오후 5시)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 문의전화 : 054-820-2600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글·사진 | 경상북도독립기념관 제공





## 편집위원들의 소식지 제작 소감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2016년부터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국민들에게 강제동원을 널리 알리고자 소식지 'FoMo'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 뒤에는 소식지 제작을 위해 힘써 주신 편집 위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역사관과 함께 한 지난 1년, 편집위원 여덟 분의 소식지 제작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부끄럽게도 편집위원을 맡기 전까지 역사관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지난 1년 10개월은 미력하게나마 소식지 제작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역사관의 모든 분을 응원하며, 2023년 역사관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미숙 편집위원



만일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집을 나선다면 그는 자기 집 문간에 현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까? 나날이 거듭되는 수많은 날의 연속.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통하여 삶의 시간을 걸어갈 때, 거인과 소인, 늙은이와 젊은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때론 강도와 유령을 만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결국에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낯설었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매겨진 포모. 포모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의 평범하지 않은 삶을 마주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연들 속에 담긴 고난의 이야기를 읽으며, 뼈아픈 역사 속에 결국엔 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사연들은 더 이상 먼 이야기로, 나와 무관한 소식도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나를 만났다. 나는 오늘도 나날이 호를 거듭하는 포모를 보며 잊어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될 현자를 만난다.

김영진 편집위원

FoMo 소식지 편집위원회가 꾸려진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한 권 마무리하고 돌아서면 또 다음 호가 과제처럼 기다리고 있어 종종 걸음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소식지는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표지사진을 고르고, 글을 수정하고, 기사 순서를 정하고, 지면 레이아웃을 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타고하는 작가의 심정으로 만들어 내었을 것입니다. 특히 김민균, 반선영 팀장님, 추경아 학예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또한 화를 거듭하며 완성도 높은 FoMo를 대할 때마다 편집위원회의 그동안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합니다. 앞으로도 보내주시는 시안이 너무나 깔끔하여 일없는 편집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독자들과 호흡하며 만들어 내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란 편집위원



FoMo의 새 출발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뻐던 일 년이었습니다. 배움이 짧고, 역사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편집위원을 맡아도 될지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역사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에 터전을 잡을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성장은 소식지의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발전하는 FoMo의 모습을 보면서, 부딪힘을 느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역사관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게 됐지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고, 재미있고, 따뜻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이러한 포부를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 두 나 편집위원

강제징용역사관 소식지 '포모' 편집위원을 맡는 것은 저에게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매번 '포모'를 발간하면서 직원들의 열정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애정 덕분에 저 역시 가볍게 편집위원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츰 성장하는 소식지를 대하면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열정이란 '인풋'은 우주 어느 곳에서 '아웃풋'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인풋'이 공적인 것이라면, 더 강력한 '아웃풋'이 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내년에도 '포모'는 탄산수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공기 방울 같이, 꼭 눌러둔 수많은 가능성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바랍니다. 의례적인 술자리 건배사가 아닌, 독자들에게 '마음의 무릎'을 겸손하게 꿇는 소통을 기대합니다.

박 태 성 편집위원

매번 FoMo의 원고를 접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묻어나는 울분과 아쉬움의 감정을 저버릴 수 없다. 옛 선배님들의 어두운 과거와 어쩔 수 없는 당함 속에서 민초들의 가느다란 희망마저 저버리고 탄광 속에서, 극한의 역경 속에서 떠내려간 그 함살을 머리에 그리면 울분과 새로운 결의가 다듬어진다. 그러기에 원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는 옷깃을 가다듬고 정신을 다하여 글자 한 자 한 자를 보고 있다. 지난 일 년 동안 FoMo의 제작을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다한 편집위원께 감사를 드리며 해방된 지 78년을 맞이하는 새해에도 FoMo의 발전을 기원한다. 새해에는 FoMo가 한일관계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소금의 역할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오늘도 FoMo의 제작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며 새해 여러분 가정에 다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창 석 편집위원

포모가 들려준 이야기는 참으로 슬펐고 가슴이 아렸다. 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 해외노무동원, 공출, 그리고 조선인 780만 명 동원이라는 숫자 앞에는 일제의 강제동원이 있었다. 잊어서도, 잊혀서도 안 될 우리 선조들의 무거운 이야기가 포모의 따뜻한 날갯짓으로 가벼워지기를... 적어도 전시관 입구에서 슬퍼서가 아닌 무서워서 울지 않기를... 우리가 지켜야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널리 널리 알려주기를... 함께한 편집위원들, 역사관의 담당 학예사들 덕분에 일제 강제동원 시기의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어 감사하다.

안 덕 자 편집위원

얼떨결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제작하는 소식지(FoMo)의 편집위원이 됐습니다. 아직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처음엔 신문 인쇄 전 대장 대하듯 했습니다. 오타자는 없는지, 제목은 제대로 본문을 대신했는지 기계적이었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FoMo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가 대하듯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을 하는 역사가관이 있고, FoMo가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잘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 호된 지적질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여건아래 지적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역사를 우리 곁에 이끌어주시는 FoMo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 성 곤 편집위원







## 네모네모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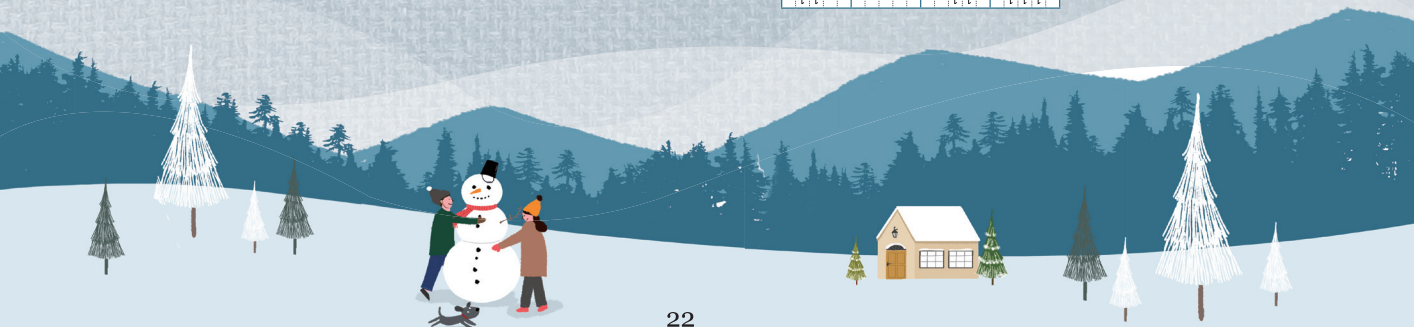
네모네모로직을 통해 숨어있는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 네모네모로직 하는 방법!

- 쓰인 숫자만큼의 연속된 칸을 칠해야 한다.
-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적어도 한 칸을 비워야 한다.
- 숫자의 순서와 칠해진 칸의 순서는 일치해야 한다.

[illegible][illegible]

FOMO는 원래의 강제동원론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 of Resources'의 약자입니다. 현재 강제동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학계와 언론에서 FOMO를 대체하는 용어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 관람시간 : 09:30 ~ 17:30 (최종입장 17:00)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 역사관 시설 무료 대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 1층 : 올림의 방
- 5층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 6층 : 멀티미디어실, 휴게실
- 문의 : 051) 629-8600

### 자원봉사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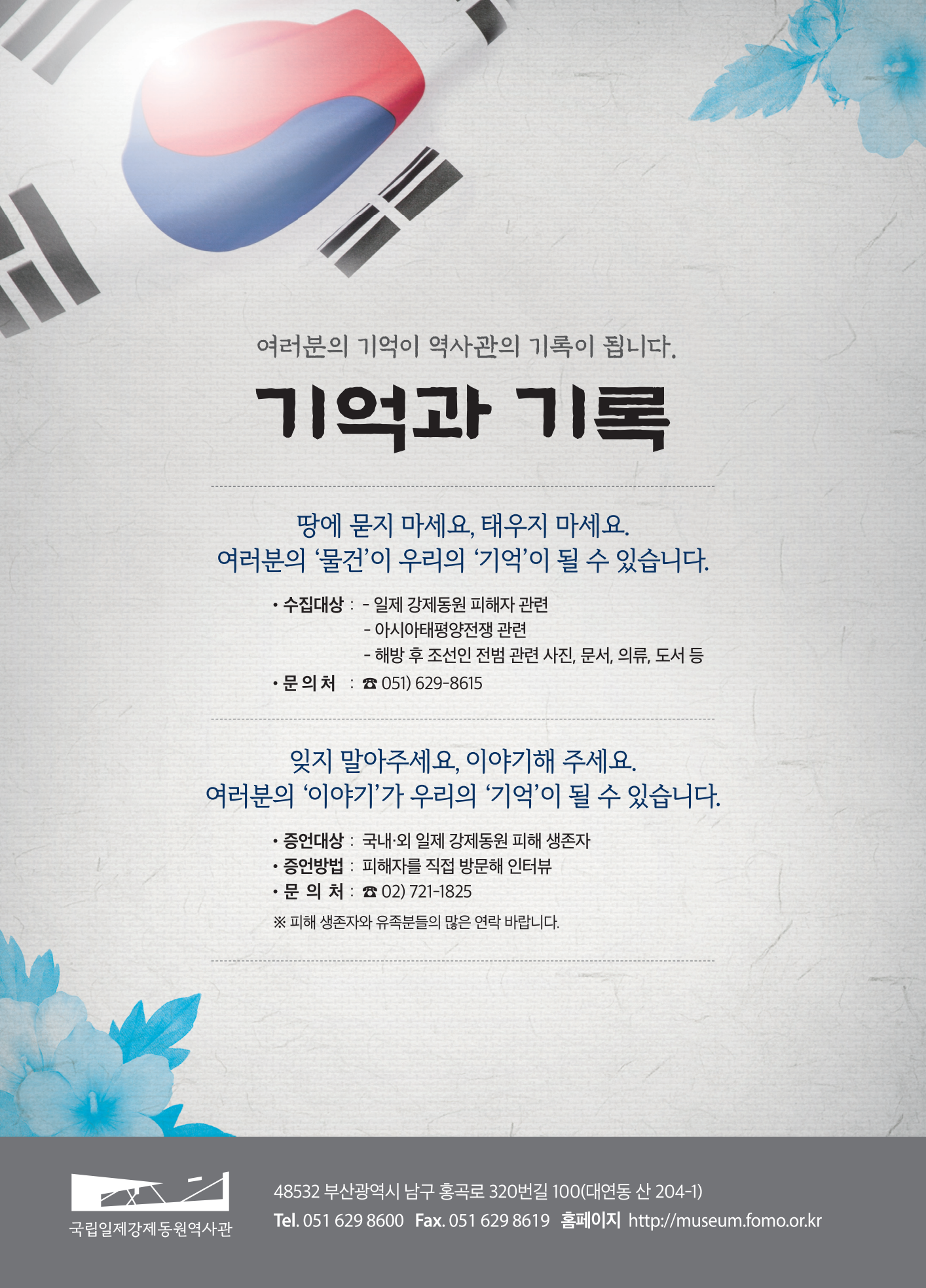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 갈 역사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 1365 자원봉사자포털  
<https://www.1365.go.kr/>
- 문의 : 051) 629-8600, 8621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나 역사관에 바라는 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동봉된 엽서, 이메일([museum@fomo.or.kr](mailto:museum@fomo.or.kr)),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 기억과 기록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 해방 후 조선인 전범 관련 사진, 문서, 의류, 도서 등
- 문의처 : ☎ 051) 629-8615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
- 문의처 : ☎ 02) 721-1825

※ 피해 생존자와 유족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